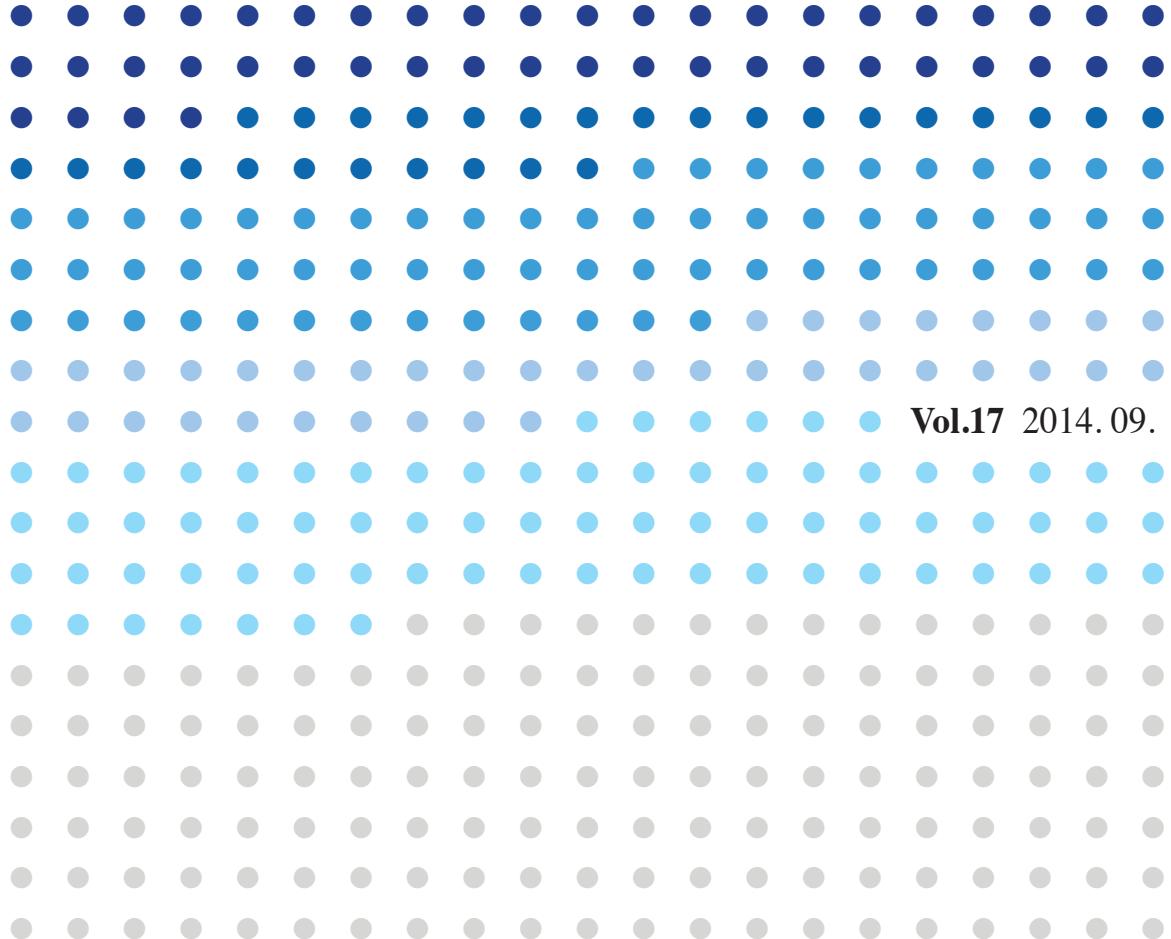


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조사

이창호 연구위원



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조사

개요 ►►►

| 조사목적 |

- ▶ 최근 들어서 디지털 기기가 진화하면서 사이버불링의 양상 또 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추세임.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사이버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음. 하지만, 아직까지 사이버불링피해신고방법이나 대응요령 등 사이버불링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대응책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 이를 위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.

| 조사대상 |

- ▶ 전국 중, 고등학생 총 4,000명(중학생 2,000명, 고등학생 2,000명)

| 조사방법 |

- ▶ 조사원의 학교방문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

| 조사기간 |

- ▶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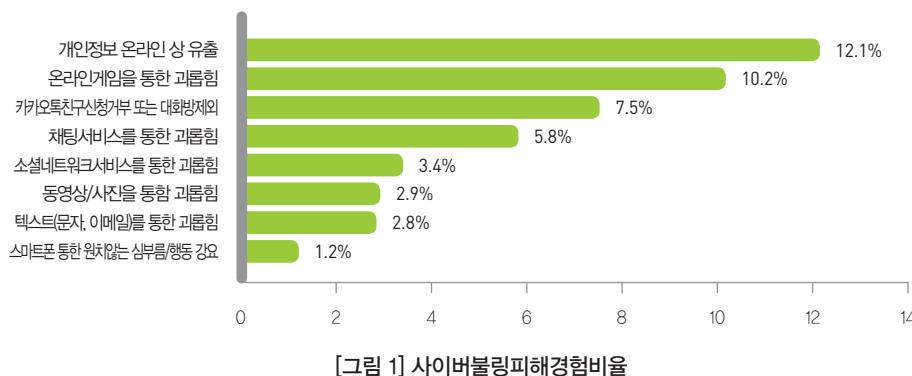
NIFPI
YOUTH
RESEARCH
BRIEF

주요연구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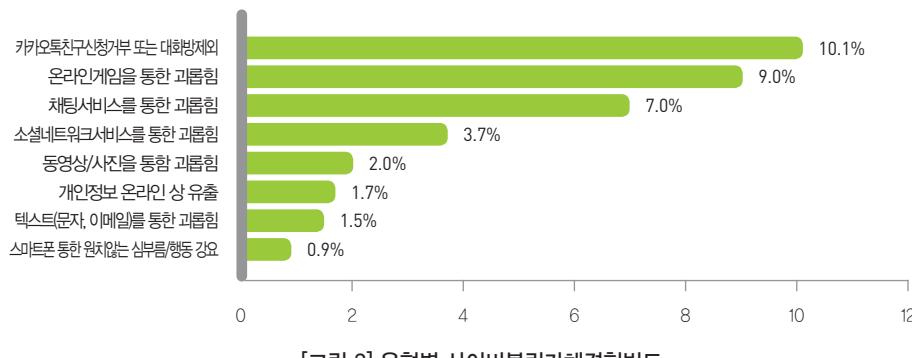
● 피해경험으로는 온라인상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많음

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을 질문한 결과,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상에 개인정보유출이었음. 즉 응답자의 12.1%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음. 이어 온라인게임을 통한 괴롭힘이 뒤를 이었는데 10명 중 1명 가량(10.2%)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([그림 1] 참조).



● 가해경험으로는 카톡친구신청거부나 대화방제외가 가장 많음

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가해경험으로는 카카오톡 이용 중 친구신청을 거부하거나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제외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. 즉 응답자 10명 중 1명 가량(10.1%)이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. 온라인게임을 통해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9.0%에 달했음([그림 2] 참조).



● 남학생은 게임, 여학생은 SNS에서 사이버불링피해를 많이 당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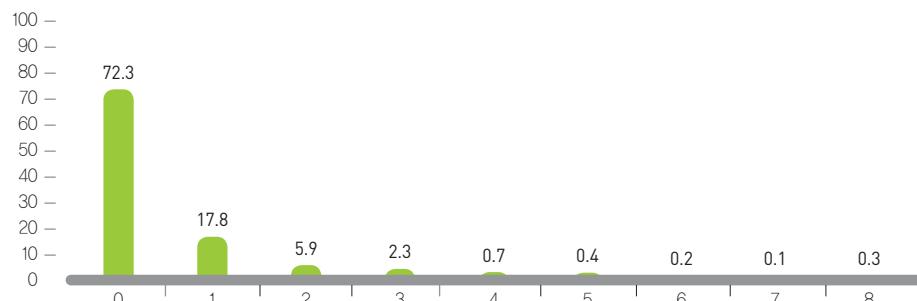
여학생(3.3%)에 비해 남학생(16.1%)이 훨씬 더 온라인게임 중 괴롭힘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. 카카오톡이용중 친구신청을 거부당하거나 대화방에서 제외된 적이 있는 비율은 남학생(6.0%)보다 여학생(9.3%)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음.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여학생(4.1%)이 남학생(2.8%)보다 더 높았음(〈표 1〉 참조).

[표 1] 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피해경험

		전혀 없다	한두번	한달에 두세번 정도	일주일에 한번 정도	일주일에 여러번	전체	
채팅서비스를 통한 괴롭힘	전체		3768	206	14	4	8	4000
	성별	남자	94.2%	5.2%	0.4%	0.1%	0.2%	100.0%
		여자	94.4%	4.6%	0.5%	0.1%	0.3%	100.0%
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	전체		3863	120	11	0	4	3998
	성별	남자	96.6%	3.0%	0.3%	0.0%	0.1%	100.0%
		여자	97.2%	2.2%	0.4%	0.0%	0.2%	100.0%
온라인 게임을 통한 괴롭힘	전체		3589	263	56	37	52	3997
	성별	남자	89.8%	6.6%	1.4%	0.9%	1.3%	100.0%
		여자	83.9%	9.7%	2.4%	1.7%	2.4%	100.0%
동영상/ 사진을 통한 괴롭힘	전체		3885	95	11	4	4	3999
	성별	남자	97.1%	2.4%	0.3%	0.1%	0.1%	100.0%
		여자	96.3%	2.9%	0.5%	0.1%	0.2%	100.0%
텍스트 (문자, 이메일)를 통한 괴롭힘	전체		2086	63	10	3	4	2166
	성별	남자	1799	32	1	1	0	1833
		여자	98.1%	1.7%	0.1%	0.1%	0.0%	100.0%
카카오톡 친구신청 거부 또는대화방 제외	전체		3886	94	14	2	3	3999
	성별	남자	97.2%	2.4%	0.4%	0.1%	0.1%	100.0%
		여자	97.9%	1.5%	0.5%	0.0%	0.1%	100.0%
개인정보 온라인 상 유출	전체		1766	61	4	1	1	1833
	성별	남자	96.3%	3.3%	0.2%	0.1%	0.1%	100.0%
		여자	90.7%	8.9%	0.2%	0.1%	0.0%	100.0%
스마트폰 통한 원치 않는 심부름/ 행동 강요	전체		3514	429	40	7	9	3999
	성별	남자	87.9%	10.7%	1.0%	0.2%	0.2%	100.0%
		여자	89.2%	8.9%	1.2%	0.3%	0.4%	100.0%
	전체		1933	192	27	6	8	2166
	성별	남자	1581	237	13	1	1	1833
		여자	86.3%	12.9%	0.7%	0.1%	0.1%	100.0%
	전체		2138	16	8	0	3	2165
	성별	남자	98.8%	0.7%	0.4%	0.0%	0.1%	100.0%
		여자	1814	18	1	0	0	1833
	전체		99.0%	1.0%	0.1%	0.0%	0.0%	100.0%

- 전체응답자의 27.7%는 어떤 식으로든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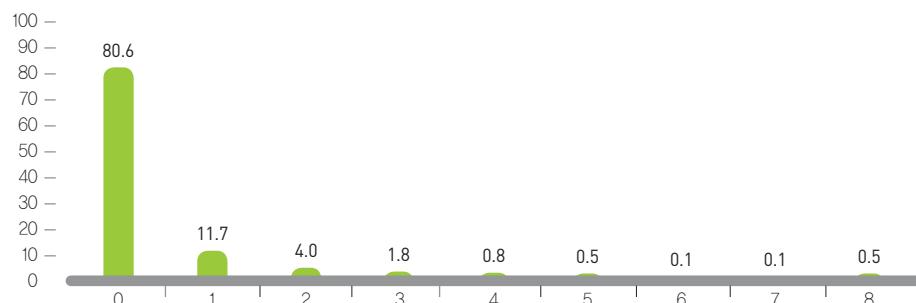
각 경험치 값을 전혀 없는 경우는 0,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모두 1로 리코딩하여 사이버불링피해 8개문항의 값을 합한 점수를 사이버불링피해지수(0점~8점)로 만들. 그 결과, 72.3%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피해를 전혀 겪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어떤 식으로든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비율은 전체의 27.7%로 나타났음([그림 3] 참조). 즉 10명 중 3명 가량이 사이버불링피해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셈임. 사이버불링피해 8가지 경험을 모두 겪은 응답자는 전체의 0.3%에 불과했음. 17.8%의 응답자들은 사이버불링피해경험 중 어떤 한 가지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음.



[그림 3] 사이버불링피해지수

- 전체응답자의 19.4%는 어떤 식으로든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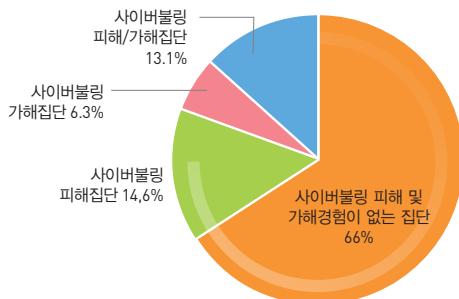
각 경험치 값을 전혀 없는 경우는 0,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모두 1로 리코딩하여 8개문항의 값을 합한 점수를 사이버불링가해지수(0점~8점)로 만들었음([그림 4] 참조). 그 결과, 응답자의 80.6%가 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9.4%의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.



[그림 4] 사이버불링가해지수

●●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을 동시에 한 집단은 13.1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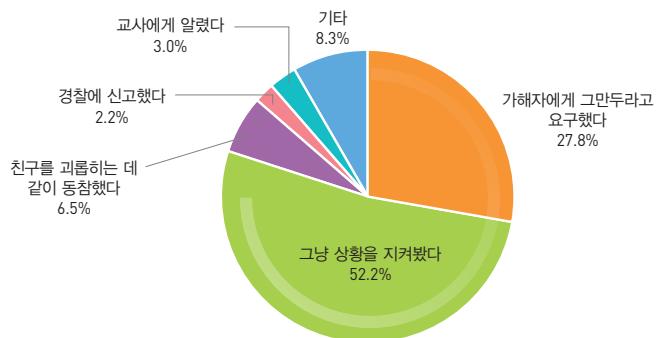
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,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경험 어느 쪽도 없는 집단이 전체의 66.0%를 차지했고 사이버불링피해만 당한 집단은 14.6%,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은 6.3%, 사이버불링피해와 가해경험을 다 갖고 있는 집단은 13.1%를 차지했음.



[그림 5] 사이버불링집단유형

●● 사이버불링목격시 절반가량은 그냥 상황을 지켜봄

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질문한 결과, 응답자의 절반가량(52.2%)이 그냥 상황을 지켜봤다고 답했음([그림 6] 참조). 경찰에 신고하거나(2.2%)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(3.0%)는 극히 드물었음. 따라서,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알리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

[그림 6] 사이버불링피해목격시 행동

●● 사이버불링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교생활만족도 낮아

사이버불링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은 집단과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(<표 2> 참조). 즉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음.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았음.

[표 2] 집단별 학교생활만족도 차이

		평균	표준편차	통계적 차이검증
성별	남	3.68	0.68	$t = -.46$ (n.s.)
	여	3.69	0.76	
교급별	중	3.75	0.68	$t = 5.85^{**}$
	고	3.62	0.75	
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	없다	3.73	0.73	$t = 5.92^{**}$
	있다	3.58	0.69	
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유무	없다	3.71	0.73	$t = 3.99^{**}$
	있다	3.59	0.68	

* $p < .05$, ** $p < .01$, *** $p < .001$ (n.s.는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)

사이버불링경험유무의 경우 한번이라도 해당경험이 있으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음.

● 사이버불링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애착이 낮아

사이버불링가해집단의 부모애착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음. 사이버불링피해집단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애착이 낮았음. 즉 사이버불링을 겪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모애착이 낮음을 알 수 있음(〈표 3〉 참조).

[표 3] 집단별 부모애착 차이

		평균	표준편차	통계적 차이검증
성별	남	3.78	0.82	$t = 7.19^{***}$
	여	3.58	0.91	
교급별	중	3.69	0.87	$t = 1.89$ (n.s.)
	고	3.64	0.89	
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	없다	3.71	0.87	$t = 4.92^{***}$
	있다	3.56	0.88	
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유무	없다	3.69	0.87	$t = 3.48^{**}$
	있다	3.57	0.88	

* $p < .05$, ** $p < .01$, *** $p < .001$

● 사이버불링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신뢰도 낮아

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집단과 사이버불링가해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신뢰가 낮았음(〈표 4〉 참조).

〈표 4〉 집단별 부모신뢰 차이

		평균	표준편차	통계적 차이검증
	남	3.66	0.92	$t = 1.97^*$
	여	3.60	0.98	
교급별	중	3.66	0.94	$t = 1.79$ (n.s.)
	고	3.60	0.97	
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유무	없다	3.70	0.94	$t = 6.98^{***}$
	있다	3.46	0.98	
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유무	없다	3.67	0.94	$t = 5.21^{***}$
	있다	3.47	0.99	

* $p < .05$, ** $p < .01$, *** $p < .001$



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종빌딩 9/10층
114 Taebongro, Seocho-Gu, Seoul 137-715 Korea
Tel. 02-2188-8800 Fax. 02-2188-8869 www.nypi.re.kr

